

즉흥연주 기법 중 타깃노트로의 접근법 연구 -찰리파커 솔로를 중심으로

김중희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tane_kim@hanmail.net

Research on the approach to the target note among improvisation techniques -Focusing on Charlie Parker's solo

Choonghoy Kim
Dept.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Poplar Music

요 약

본 논문에서는 1940년대 비밥재즈 음악 중 즉흥연주 부분의 작곡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부합한 연주를 하도록 지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찰리 파커의 솔로 연주를 분석하고 특히 그의 연주에 나타난 타깃 노트로의 다양한 접근법을 연구하여 보다 체계화된 즉흥 연주를 하고자 함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먼저 주어진 코드에서의 타깃노트 위치와 역할에 관하여 정리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타깃노트로의 접근방법을 통하여 비밥적인 재즈 솔로에 사용될 수 있는 문법들에 부합하는 작곡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찰리 파커의 즉흥연주는 주어진 코드의 코드 톤과 텐션 등 타깃노트를 선택하여 다양한 리듬에 적용되었으며, 각 타깃노트들은 반음/온음계적 접근, 아르페지오, 인클로저 등의 일반적인 어프로치 기법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대리코드, Upper Structure Chord를 이용하는 어프로치 기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즉흥연주의 구조와 적용된 접근방식에 대해 학습하여, 논리적인 즉흥연주를 하고자 하는 연주자들에게 향후 유용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퍼스트럭처(Unpper Structire)의 적용 등 다양한 즉흥연주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찰리 파커의 음악적 프레이즈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즉흥연주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1. 서론

1940년대는 비밥(Bebop)이 시작된 시기로 재즈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인 모던 재즈의 시작으로 본다. 비밥은 연주자들이 예술의 경지로 다가가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스윙의 대중 지향적인 면과 다르게 예술적 장르로서 진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흥연주를 재즈의 중심으로 생각한 많은 연주자들은 비밥 재즈를 연구하고 공부하여 비밥 재즈를 재즈의 주류로 정착시켰다. 비밥의 영향으로 인해 재즈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로 발전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논자는 현대 재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찰리 파커(Charlie Parker, 1920-1955)의 즉흥연주에 나타난 기법들을 분석하고 적용하였다. 찰리파커의 대표곡들 중 그의 즉흥연주를 중심으로 타깃노트(Target Note)에 대한 어프로치(Approach) 기법을 연구를 하였다. 찰리 파커의 즉흥연주기법을 연구하며 그의 연주기법에서 많이 나타난 반음/온음 어프로치(Chromatic/Diatonic Approach), 대리코드, 어

2. 본론

재즈 즉흥 연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코드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프레이즈 이다. 프레이즈의 중심이 되는 음을 타깃노트(Target Note)라고 한다. 연주자는 헤드의 멜로디와 그 곡의 코드진행을 토대로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가며 그 멜로디의 중요 포인트가 되는 코드 톤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주하는데 집중한다.

2.1 타깃노트 위치

타깃노트는 연주의 흐름이 향하는 목적지 음으로 정의되며, 타깃노트가 될 수 있는 음은 각 코드의 화성 구성 음, 혹은 어보이드 노트를 제외한 텐션 음이다. 타깃노트는 각 마디 안에서 강박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분의4박자의 악곡

을 예를 들면 일반적인 리듬 표기 방식으로 보면 강,약,중강,약 로 표기되며 결국 1,3박은 강박에 해당되며 상대적으로 2,4 박은 약박이 된다.



[표 1] 강박,약박

비밥 연주의 특징은 단순한 4 Beat 스타일의 연주에서 8 Beat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타깃노트(Target Note)dp 대한 다양한 Chromatic Approach 와 다양한 폴리 리듬적 프레이즈를 만들었다. 8Beat를 기본으로 하는 프레이즈에서는 강박이 Down Beat 즉, 1,2,3,4 이 될 수도 있다.



[표 2] 8Beat에서의 강박

일반적으로 한 마디 안에서 1박 과 3박을 타깃노트로 하며 찰리파커의 경우 8beat를 기본으로 하는 프레이즈에서는 1,2,3,4 박이 타깃노트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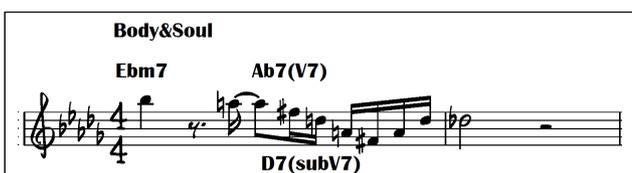


[표 3] 1,2,3,4박이 타깃노트

2.1.1 타깃노트로의 접근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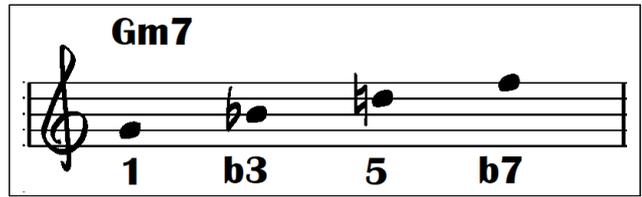
찰리파커의 연주에서 보이는 타깃노트 간의 연결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법인 어센딩 크로매틱 노트, 더블 크로매틱 어프로치와 보조음을 활용한 리핑 어프로치 기법, 딜레이 리졸브 어프로치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찰리 파커 연주에 사용된 기법과 원칙들 중에서 대리코드와 Upper Structure Chord를 사용하는 접근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찰리파커는 V7(도미넌트 코드) 에서 자주 subV7(대리코드)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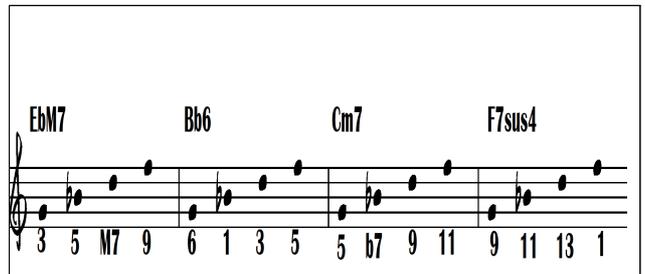
[표 4]대리코드를 이용한 접근법

두 번째, Upper Structure Chord를 사용하는 접근법은 하나의 코드톤으로 다양한 코드진행에서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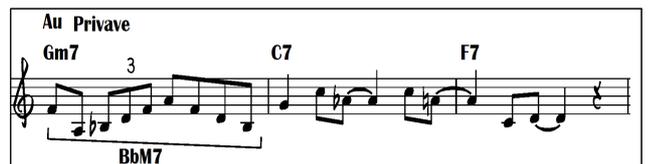
[표 5] Gm7 코드톤

예를 들어 Gm7 코드톤을 EbM7, Bb6, Cm7, F7sus4 등의 다양한 코드에 적용하였다.



[표 5] 다양한 코드에 적용

다음의 예제는 찰리파커의 블루스곡인 'Au Privave' 의 솔로에서 Gm7 코드에서 BbM7코드를 활용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5] Gm7 코드에 BbM7 코드톤 적용

예시와 같이 찰리파커의 다양한 프레이즈는 타깃노트에 대한 일반적인 어프로치 방법은 물론 비밥 어프로치라고도 할 수 있는 대리코드 와 Upper Structure Chord를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의 연구 결과, 솔로연주에서 찰리 파커가 주로 사용하였던 반음계적, 온음계적 접근 그리고 인클로저 등의 어프로치 기법 이외에도 코드비밥 시대 즉흥연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어프로치 노트 기법 대리코드 또는 Upper Structure Chord 의 활용은 현재 활동 중인 많은 재즈 연주자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찰리파커를 비롯한 비밥재즈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재즈 음악에 큰 영향 및 기반을 만든 비밥재즈의 충분한 이해와 노력은 현대재즈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찰리파커의 구조와 연결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어프로치 기법들의 학습은 연주와 작곡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음악적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재즈를 연구하고자 하는 연주자들이나 재즈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향후 유용한 학습 프로그램 또는 작곡의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Charlie Parker Omnibook”, Atlantic Music Corp, 1978년
- [2] Ed Saindon.“The Complete Guide To Improvisation”, Ed Saindon Music Corp, 2012년
- [3] David Baker“How To Play Bebop”, Alfred Music Corp, 1978년